

의안번호	제591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387회)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제안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20년 11월 25일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591
----------	-----

제안연월일 : 2020년 11월 25일
제안자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개항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던 청주국제공항은 2008년 한성항공 운항중단, 2017년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인 이용객 급감 등 어려운 시기를 겪음.
-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청권 지역민들의 하나된 의지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대전제인 충청권 공조라는 거버넌스를 만들었고, 한성항공 철수 이후 11년만인 2019년 3월에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유치에 성공함.
- 거점항공사 유치로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한층 더 도약 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함.
-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신청한 운항증명(AOC) 발급의 기약 없는 지연으로 적지 않은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전원은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운항증명의 조속한 발급을 위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 대정부건의안 : 붙임참조

□ 보낼곳 :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

충청권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에어로케이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본래 군사공항이었던 청주공항은 1997년 4월,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과 지지 속에 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현재의 민군 공용 비행장인 청주국제공항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던 청주국제공항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2005년 취항한 국내 1호 LCC 한성항공이 2008년 운항을 중단 하면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또한 2017년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인 이용객 급감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청권 지역민들의 하나된 의지는 청주 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지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은 연 이용객 300만명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국제공항 중 4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지속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대전제는 충청권 공조라는 거버넌스를 만들었고, 한성항공 철수 이후 11년만인 2019년 3월에 에어로케이 항공면허 취득이라는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점항공사 유치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2023년까지 총 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고 450여명의 운영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신청한 운항증명(AOC) 발급의 기약없는 지연으로 적지 않은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항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어로케이는 날갯짓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운항증명(AOC) 신청 이후 1차로 150여명의 인력 채용, 1호기 도입 등 기본 여건을 갖추고, 서류검사와 시험비행까지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현장검사 시 보완을 요구한사항도 지난 9월에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 보완 요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달 25일 기준 역대 최장기간인 418일째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어로케이와 함께 항공면허를 취득했던 '플라이강원'은 6개월 만에 운항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권 지역민들은 플라이강원 사례를 보면서 적지 않은 박탈감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명실공히 중부권 대표공항입니다.

충청권 지역민들이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마음가짐으로 합심해 이루어낸 성과가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도 행정수도 완성론과 함께 신수도권시대에 걸맞는 중심공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점항공사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전원은 에어로케이에 대한 운항 증명의 조속한 발급을 위해 한 목소리로 건의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청주 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청권 지역민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국토부에서 항공운항증명을 조속히 발급해 줄 것을 충청북도의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 11. 25.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